



목포 하당지구 평화광장이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를 계기로 세계 속 해양관광 및 축제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1일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전야제가 열린 목포 평화광장에 국내외 관광객 1만여 명이 모여 레이저쇼를 감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목포 하당 평화광장 '관광명소' 됐다

F1 계기 국내외 관광객 북적 '이국적 풍경'
해양문화축제 등 연중행사 '축제광장' 각광

목포 하당지구 평화광장이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를 계기로 전남 서남부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갈치 낚시 등 해양관광과 지역축제의 단골 무대였던 평화광장이 F1 대회 행사기간 각종 문화축제와 전시행사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까지 부쩍 늘어 '축제의 광장'이자 주요 관광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치러진 F1 대회 기간 중 평화광장 곳곳에 펼쳐진 진풍경이 이를 입증했다.
12개 참가팀 스태프들과 대회 운영

관계자, 국·내외의 미디어 관계자들이 평화광장을 찾아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콘서트 등 각종 문화축제 행사를 자유롭게 즐기는 이국적 풍경을 연출했다. 카페나 레스토랑은 물론 거리 곳곳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거렸다.
서울 흥대 앞 클럽에서 활동중인 유명 DJ가 진행하는 '레이브 파티(rave party)' 프로그램과 댄스스포츠, 록 밴드·비보이 공연 등도 매일 새벽까지 흥겹게 진행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했다.
지난 7월 30일부터 첫 선을 보인 평화광장 앞 바다의 세계 최초 '춤추는 바다 분수'도 국내외 관광객

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십 가지 조명을 받으며 물기둥이 춤추는 광경은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또한, 대회기간 14개국 50척의 요트,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목포~제주 국제요트레이스도 도심 한복판에서 요트레이스의 향연을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평화광장에서는 매년 도자기 축제(5월)와 목포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5월), 해양문화축제(7월), 전남 청소년 밴드경연대회(9월), 갈치낚시 축제(10월) 등이 잇따라 열려 축제의 광장이자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 가운데 여름철에 열리는 해양문화축제와 가을철 갈치낚시 축제 등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뤄 주요 축제 프로그램으로 정착됐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이를 더욱 활

성화시켜 평화광장을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해양관광 중심지로 바꾸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F1 대회를 계기로 목포가 국제적 해양관광 도시로 전 세계에 알려지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통해 목포시의 평화광장을 세계의 명소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 현지 스페셜 - 해물지리탕, 추어탕, 육개장
- 특선해물뷔페 - 35,000

특약인

- 객실: 전 객실 50% 할인
- 예약율: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 물산지: 숙박권 증정 및 패키지 할인

일순연 · 각종 세미나 · 레 · 송 · 소연회장 준비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광주은행 패키지 매각 우선 추진

우리금융·경남은행과 묶어 ... 인수자 없으면 분리

예보, 오늘 매각 공고

광주은행 매각은 우리금융으로부터 분리매각 하기보다 '우리금융+광주은행+경남은행'을 패키지로 묶어 매각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29일 공적자산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금융 매각 공고를 30일 일간 신문과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 게재한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은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발행 주식 56.97% 전량과 우리금융이 보유한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발행 주식 100%다.
예보는 우리금융 입찰 참여자의 문호를 최대한 개방한다는 전략에 따라 2002년 조흥은행 매각 때와 마찬가지로

로 최저 입찰규모를 4% 이상 지분인수 또는 합병으로 정했다.
반면 광주·경남은행은 '50%+1주 이상 지분 인수 또는 합병'을 최소 입찰규모로 제시했지만 매각 주체와 구체적인 매각물량은 추후 확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광주·경남은행을 분리 매각할지 여부도 최종 입찰을 한 뒤 우리금융 전체에 대한 입찰자의 제안 내용과 비교해 결정하기로 했다.
예보는 오는 11월26일 오후 5시까지 입찰참가의향서를 접수하며 예비 입찰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입찰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광주·전남지역 상공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광주은행만을 분리해 매각하기보다는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주식과 광주·경남은행

발행 주식 전량을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고, 인수 의향자를 찾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만약 '패키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때 가서 우리금융과 광주은행, 경남은행을 각각 분리해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 분리매각 여부는 입찰참가의향서 접수가 마감되는 오는 11월26일 이후에 입찰참가자들의 입장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상의는 우리금융 인수 의사를 비친 하나금융지주 등의 경우 우리금융 인수 의사는 있지만 지방은행은 업무 중복 등으로 꺼리고 있어, 분리인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상의는 분리매각이 이뤄질 것을 대비해 투자자 모집과 투자액수 조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입찰제안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박정욱·이은미기자 jwpark@

금호 박삼구 명예회장 '경영복귀'

내달 1일부터 ... 경영정상화 탄력 기대



금호아시아나 그룹 박삼구(사진) 명예회장이 다음달 1일 경영일선에 복귀한다. 지난해 7월 28일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갈등으로 스스로 물러난 지 15개월 만이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9일 "다음달 1일부터 박삼구 명예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박 명예회장의 경영복귀는 그룹의 구심점 역할을 해 줄 강력한 리더십과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안팎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명예회장은 앞으로 사장단 회의

를 직접 주재하고, 공식적인 대외활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대내외적인 활동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앞장서게 된다.
박 명예회장의 복귀로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인사불란한 체제를 갖춰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영업실적 호전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황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여성 ROTC
경쟁률 6대 1
창군 이후 첫 모집

육군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여성 학군장교(ROTC)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 60명 모집에 360명이 지원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9일 밝혔다.
여성 학군단 시범대학으로 선정된 전남대는 5명 선발에 54명이 지원해 1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교별 경쟁률은 명지대가 10.6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여성 학군장교 경쟁률이 높은 것은 취업난이 심해지며, 여대생들 사이에 안정적인 직업군인의 인기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합격자는 11월 30일 발표한다. /채희종기자 chae@

세계를 뒤흔든 바로 그 뮤지컬!
전세계 3천만 관객의 돌풍! 문화수도 광주에 상륙!

뮤지컬 맘마미아!



2010년 12월 3일(금)~5일(일) 총 5회 공연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광주일보 | KBC | KCTV 광주방송 | 주관 | 공연마루

BENNY ANDERSSON & BJÖRN ULVAEUS'

MAMMA MIA!

ABBA® 음악으로 만든 최고의 뮤지컬